가뭄 대처 총력

도, 재난대책본부 가동
합동 TF팀 구성 운영
굴삭기 205대 등 지원

전북도는 가뭄대응태세를 강화하여 가뭄대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가뭄이 비상단계에 진입한 지난 8월 7일에 즉각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체계에 돌입하는 한편, 도민안전실장을 중심으로 가뭄대책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긴급 가뭄 해소를 위해 피해 우려가 있는 시군에 86억원(국비 7억원, 지방비 79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긴급 급수대책 및 용수개발 사업을 추진 하여 가뭄에 적극 대처 중에 있다.

특히 굴삭기 205대, 양수기 333대, 살수차 78대 등을 지원하여 농업용수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가뭄상황의 장기화 우려에 따라 추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 사업비 특별교부세 42억원을 행정안전부에 지원 요청, 향후 가뭄상황에 따라 추가 예비비 지원 등을 시행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가에서도 들샘 및 둠벙을 이용한 긴급 농업용수 공급 등을 시행하여 작물 고사에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14일 DMZ 평화 관광·교육의 현장을 방문했다.

"평화·화해·상생, 삶으로 체화토록"

시도교육감들, DMZ평화관광 연계 평화교육 현장방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14일 DMZ 평화 관광·교육의 현장을 방문했다.

비무장지대(DMZ)에 평화의 이미지를 심고, 이와 관련된 관광·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전환과 공감대 형성의 첫 담쟁이 잎이 되자는 취지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도종환 문체부장관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시·도교육감들을 파주 판문점 및 캠프그리브스에 초청한 것.

이날 시도교육감들과 김상곤 부총리, 도종환 장관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평화의 집을 포함한 판문점 주변, 미군기지에서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 및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캠프 그리브스를 둘러봤다.

교육감들은 향후 DMZ가 격전과 치열한 대치의 장이 아니라 이제는 평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관광객들과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전북교육감)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 공동체에게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DMZ'를 알려 현장체험 교육 기회를 넓히겠다"며 "이를 통해 평화와 화해, 상생의 가치를 삶으로 체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문 대통령 제73주년 광복절 메시지

북미 비핵화 교착 국면 돌파 의지… '한반도 운전자' 재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3주년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중심이 돼 평화 정착을 견인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거행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 축사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가고 있다"며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의 명분이 됐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됐으며 특권과 부패의 온상이 됐다"며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복 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이 여러 사회 부조리를 가져왔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대북정책의 핵심인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분단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데 문 대통령의 시선이 닿아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다음 달로 합의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분단의 원인이 된 65년 간의 전쟁체제를 종식하는 종전선언을 연내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하고 있다.

오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구체화 시키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러한 발언 속에는 남북 정상이 비핵화→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비핵화 여정을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의지가 녹아있다. 4·27, 5·26 두 차례 가진 남북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신뢰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먼저 이루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며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 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경축사에 메시지 발신… "北 비핵화, 美 상응조치"
"남북 간 신뢰관계 구축… 북미대화 촉진 주도적 노력 병행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부수효과 아냐… 비핵화 촉진 동력"

이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가 아니라, 거꾸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을 견인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러한 인식을 재확인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미국 국무부의 논평과 결을 달리 한다.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추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선후(先後)'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북미 관계의 변수로 평양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확인된 문 대통령의 인식은 여러모로 갖는 함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두 바퀴 평화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두 바퀴 축을 이뤄 동시에 굴러갈 때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이다.

남북-북미관계라는 두 개의 큰 바퀴가 같이 돌아가고, 특히 그 과정 속에서 남북관계의 축이 원동력이 돼 다른 쪽에 있는 북미관계의 축을 돌려야 한다는 것으로 이날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는다"며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탄소복합재적용 창업기업 지원대상 협약

전북도, 16일 체결키로

전북도는 도내 탄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탄소복합재기반 벤처 창업기업 육성지원사업(이하 '동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이들 기업과 16일 협약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자동차부품, 난방제품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중인 탄소복합재를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등에 적용하여 도내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 기업들의 성공기반을 다지자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전북도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주관으로 4년째 추진 중으로, 2017년에 시제품제작 22건, 마케팅지원 7건을 지원하는 등 3년동안 47개기업에 총 85건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3회)를 거쳐, 시제품제작 18개사에 각각 최대 2천만원 지원, 디자인 개발 12개사에 각각 최대 600만원씩(총30개사)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아이템 중엔 MOCVD(유기물금속화학증착법)용 메인디스크, LED 방열판 등 첨단 산업용 제품부터 농업용 농약 살포 드론, IoT 기반 탄소발열 연탄 조명등, 탄소발열 조끼 등 일반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까지 다양하다.

또한 지역내 위기 지역인 군산의 자동차, 선박 관련 기업들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하여 ㈜이삭특장차, ㈜대진정공 등 CFRP 관련 자동차 부품과 해도마린의 CFRP 해양레저보트 설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 임노욱 탄소산업과장은 "이번 지원대상 확정으로 도내 예비창업자들의 제품 아이디어를 실제제품으로 구현하여 상업화를 촉진하고, 창업탄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탄소복합재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익산시,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 공사 마무리

익산시가 올들어 추진한 금마 다목적체육관 등에 관한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가 마무리 됐다.

시는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투입해 금마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금마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용동체육공원 야외무대 막구조물 설치, 종합운동장 족구장 시설개선 등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공사를 정비했다.

금마면민인 족구협회 송만규 부회장은 "익산시가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익산=우병희 기자